

삼성 KPMG

성공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어드바이저

Channel

2018 September_ Vol.188



HELLO
AUTUMN



Cover story

새로운 계절, 새 마음으로 힘차게!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 가을입니다.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가고,
새 에너지를 불어 넣어주는 반가운 계절입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드는 힘은 현재 순간에 있다’고 합니다.
삼정KPMG는 새로운 계절을 맞이해
새 마음가짐으로 다시 한번 신발 끈을 묶습니다.

건강한 성장, 행복한 일터, 신뢰받는 조직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힘찬 레이스를 펼쳐갑니다.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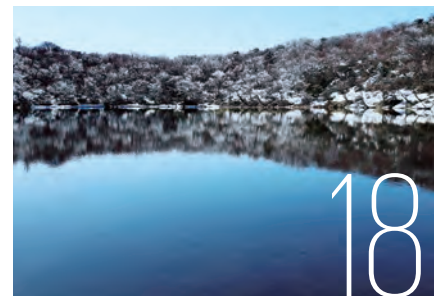
September 2018 Vol.188 삼성KPMG 뉴스레터.

건강한 성장

- 04 **Issue Focus**
녹색채권, 성장 가능성과 그 방안은?
- 06 **Team Story**
삼성KPMG IFRS16 CoE팀
- 08 **Client+**
CJ CGV
- 10 **Market Reader**
4차 산업혁명 新 아젠다, '스마트팜'을 준비하라
- 12 **Expert's Advice**
'보험부채시가평가' K-ICS, 어떻게 준비할까?
- 13 **맛있는 경제**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행복한 일터

- 15 **삼.소.해**
독서의 계절, 삼성인이 추천하는 '인생 책'은?
- 16 **인재양성소**
2018 한공회 종합평가시험 성적우수자 시상식 개최
- 18 **KPMG Tour**
제주도 한라산 등반을 떠나다!
- 20 **Talk+Play+Love**
우리만의 '향수' 만들기
- 22 **Culture & Etiquette**
세계 최대 인구의 나라, 중국의 문화와 에티켓
- 24 **KPMG Story**
Communicate openly and honestly: 소통
- 26 **Samjong News**
삼성KPMG, '제4기 ACI 자문교수단' 위촉 外



발행처 삼성KPMG 기획·편집 홍보팀(02-2112-7567) 디자인 네오메디아(02-512-1666) 인쇄 드림인쇄(02-464-6161)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편번호)06236 홈페이지 www.kpmg.com/kr
QR코드를 통해 삼성KPMG의 생생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성KPMG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녹색채권, 성장 가능성과 그 방안은?

친환경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대안 중 하나가 바로 녹색채권이다. 세계적으로 녹색채권 발행 규모는 지속 성장 중이며 2020년이면 1조 달러, 2030년이면 100조 달러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녹색채권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친환경 사업을 위한 녹색채권의 성장

올해 5월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한국산업은행이 3천억 원 규모의 원화 녹색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함에 따라, 국내 친환경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녹색채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녹색채권이란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친환경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는 특수목적채권이다. 2008년 3억 달러 규모였던 글로벌 녹색채권 시장은 2017년 1,3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으며, 최근에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사회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사회채권이나 지속가능채권의 발행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녹색채권의 발행은 World Bank나 IFC와 같은 다자개발은행 주도로 이뤄졌지만, 점차 상업은행이나 일반기업과 같은 민간부문의 발행이 활발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녹색채권이 투자등급을 받는 등 시장의 성숙도 역시 크게 달라지고 있다. 도요타 금융서비스(TFS)는 자동차 업계 최초로 2014년 3월부터 녹색채권을 발행했으며, 현재까지 총 세 번, 46억 달러 규모 자산 유동화 증권 형태의 녹색채권을

발행한 바 있다. 녹색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 구매 고객에 대한 대출과 리스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그간 녹색채권 발행통화는 기존의 선진국 통화 위주였으나, 최근 다양한 통화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15년 기준 녹색채권 최대 발행국인 중국은 국가 차원의 녹색채권 지원정책 마련 등 시장 활성화 노력을 기울여 녹색채권 발행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녹색산업 성장으로 녹색채권 투자 수요 증가해

해외 녹색채권 시장이 급격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은 선진국 녹색산업의 성장으로 인해 투자 수요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주요 투자자들이 자발적 사회 책임투자를 위한 수단으로 녹색채권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 21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사회책임투자 중 유럽이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과 캐나다에서는 전체 사회투자 금액의 40%인 연간 약 5.7조 달러가 채권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또한 채권 발행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또는 교통 인프라 시설 프로젝트 등 높은 자본적 지출과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프로젝트에 적합한 자본조달 방식이다. 녹색 프로젝트는 매우 방대한 규모의 재원을 요구하고 단기간 내에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기에, 지속적으로 자본 제공이 가능한 채권을 통해 원활한 프로젝트 운영이 가능하다.

그간 친환경 투자 재원의 수요와 공급 간 심각한 불일치는 녹색사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이해 부족 및 투자 기피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 녹색채권은 녹색사업에 대해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자금 회수를 가능하게 해주고 잠재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투자 리스크를 경감시키는 혁신적인 금융수단이 될 수 있다. 또, 투자자는 녹색채권에 투자함으로써,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이미지 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녹색산업의 성숙과 더불어 녹색채권의 수익률이 일반채권의 수익률 대비 동등한 수준으로 향상되어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국내 녹색채권 시장도 '초록불' ... 단, 신뢰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국내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본격적인 녹색채권 시장 형성에 '초록불'이 켜지고 있다. 파리기후변화협정(파리협정)의 이행과 에너지 전환 정책 이행을 위해 100조 원 이상의 획기적인 친환경 투자

수요의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주요 기관 투자자들도 사회 책임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특히, 대표적인 기관 투자자 중 국민연금은 책임투자 조직을 확대하고,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대체 투자 등 모든 자산 군에 환경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 책임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도 수천억 원 규모로 투자를 증대시킬 예정이다.

최근 연금의 사회적 책임 투자 요구 등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녹색채권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하는 기관 투자자 등으로부터 친환경 사업에 쓰일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친환경 기업, 친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녹색채권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이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특히, 친환경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는 특수 목적의 채권인 만큼, 불필요한 'Greenwash'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발행 기업은 녹색채권의 발행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투자 대상 프로젝트가 친환경 사업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자금의 집행과 결과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보고할 수 있는 제반 기준과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이에 대한 제삼자의 검증은 통해 녹색채권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들은 국내 기업들의 성공적인 발행 지원을 위해 녹색채권 관련 업무역량과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발행주선 업무를 통해 새로운 수익원 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ONTACT US

기후변화본부 리더 김형찬 상무

Tel: 02-2112-3974 E-mail: hyoungchankim@kr.kpmg.com



성공적인 'IFRS16' 도입 위한 든든한 동반자 삼성KPMG IFRS16 CoE팀

2019년부터 새로운 리스기준서인 IFRS16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삼성KPMG는 2017년 말부터 IFRS16 CoE(Center of Excellence)팀을 출범해, 기업에 IFRS16이 끼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준비하여 기업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IFRS16 도입을 돕고 있다.

IFRS16, 업무 프로세스 및 IT 시스템 개선이 이뤄져야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리스기준서, IFRS16'이 도입되면, 리스 이용자는 대부분의 리스에 대해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를 인식해야 한다. IFRS16은 부채 비율과 영업 손익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재무 비율, KPI, 차입약정, 법규상 요구 지표의 변화를 요구한다. 더 나아가 리스 정보 관리와 IT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 새로운 회계기준의 철저한 도입 준비와 이를 통한 업무 프로세스 및 IT 시스템 개선이 외부 이해 관계자로부터의 기업의 회계 정보의 신뢰성과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이다. 예를 들어, 모든 계약으로부터 리스가 포함됐는지 여부를 식별하는 단계, 리스와 비리스 요소를 분리하는 단계, 리스료와 리스 기간을 식별하는 단계, 리스할인율을 결정하는 단계, 리스사용권 자산의 손상을 검토하는 단계 등 정보와 판단이 필요한 각각의 단계별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선행돼야만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인증수준의 강화에 따른 회계변화의 요구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다.

또한, 새로운 리스기준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리스가 포함된 모든 계약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한 후 필요한 리스 정보를 추출해 새로운 리스 회계처리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IT시스템을 갖추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점에서 많은 기업들이 도입 준비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삼성KPMG는 IFRS16 CoE팀을 꾸려, 성공적인 '새로운 리스기준서' 도입의 동반자로서 기업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 힘쓰고 있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갖춘 산업별 전문가로 구성된 IFRS16 CoE팀

삼성KPMG IFRS16 CoE팀은 새 리스기준서의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품질관리실과 IT 전문가를 포함하여, 금융, 소비재(유통), 물류(운송, 해운, 항공 등), 에너지, 정보통신, 서비스

스 및 일반제조 등의 산업별 분야로 나누어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와 사례를 분석해왔다.

이미 여러 기업에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KPMG Global과 공조해 새로운 리스기준서 영향 분석 및 예상 이슈별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각 관련 업무 프로세스의 설계부터 구축 및 운영까지 One-stop(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 삼정KPMG IFRS16 CoE팀은 축적된 IFRS 전문성은 물론이고 해당 산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고도의 판단과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이슈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5월 25일에는 다양한 산업의 기업 임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IFRS16 새 리스기준서 도입전략'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삼정KPMG IFRS16’ 주요 서비스



IFRS16 영향분석

- 계약관리 현황 및 완전성 분석
- 계약별 영향분석
- 선택가능 및 경과규정 대안분석
- 재무 영향 검토 및 Simulation
- 교육 및 내부 커뮤니케이션 지원



IFRS16 이행지원

- 리스 유형별 System & Data 현황 파악
- 리스 유형별 관리 파일 정의
- 새로운 기준에 충족하는 재무 프로세스 정비



전산시스템 개선지원

- 재무정보 산출을 위한 시스템 영향 분석 및 개선 지원
- 리스 재무처리 System 구축 방안
- 이행단계 Master Plan 수립

IFRS16 도입 위한 최상의 파트너로!

삼정KPMG는 IFRS16 기준서 도입을 위한 자문을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공유하며 함께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IFRS16의 효과적인 도입 준비 방법론 및 다양하고 복잡한 이슈들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갈 예정이다. 이로써 삼정KPMG가 회계 변화의 시대를 선도해온 것과 같이, IFRS16 적용이 이뤄질 올해(사전 주식공시)와 내년(전면적용)까지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IFRS16의 최고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다.

‘IFRS16 CoE팀’을 소개한다면?

“삼정KPMG IFRS16 CoE팀은 대한민국의 IFRS16 자문 시장을 선도하며, 산업별 다양한 이슈에 대해 해결책을 찾고자 KPMG Global Working Group과 함께 노력 중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행 중인 회계 개혁 속에서 기업들의 IFRS16 도입을 위한 최고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변영훈 부대표 (팀 리더)

Tel. 02-2112-0506 / E-mail. ybyun@kr.kpmg.com

“우리 팀은 산업별 회계 및 시스템 전문가가 서로 협업하여 IFRS16 도입 영향에 대한 재무 및 시스템 영향 분석을 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기준원 정착 지원 TF와의 긴밀한 협업으로, 고객이 가장 효과적으로 IFRS16을 도입하도록 지원 중입니다.”

박관중 상무 (소비재/유통 산업 리더)

Tel. 02-2112-7403 / E-mail. kwanjongpark@kr.kpmg.com

“삼정KPMG는 회계법인 최초로 ‘IFRS16 세미나’를 개최해, 기업들의 IFRS16 도입 준비를 안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업종, 다수의 고객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종별 출돌되는 이슈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적인 준비와 축적된 지식은 금융 회사들이 IFRS16 도입과 회계 감사를 준비하는 데 도움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김민규 상무 (금융 산업 리더)

Tel. 02-2112-0428 / E-mail. mingyukim@kr.kpmg.com

“IFRS16은 모든 산업과 기업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며, 그중 정보통신산업은 IFRS15 수익 인식 기준서에 이어 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을 필두로 그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산업에 해당합니다. IFRS16 도입은 단순 회계 변경에 그치지 않고 회사의 KPI, IR, 예산프로세스 등 전사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관심을 갖고, 도입 준비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최이현 상무 (정보통신 및 일반제조 산업 리더)

Tel. 02-2112-0505 / E-mail. yeehyunchoi@kr.kpmg.com

“IFRS16은 회계처리의 변경 이상으로 자산의 요청, 예산관리, 취득 및 사용에 대한 관리, 이후 변경을 위한 프로세스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삼정KPMG IFRS16 시스템팀은 각 사의 임차계약 활용 수준(복잡성 및 건수)에 최적화된 시스템 및 프로세스가 구현되도록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 중입니다.”

정윤호 상무 (IFRS16 IT 시스템 구축 리더)

Tel. 02-2112-7982 / E-mail. yunhojung@kr.kpmg.com

“항공운송업은 전체 업종 중 운용리스 의존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자산, 부채,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등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재무비율에 크게 영향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정KPMG IFRS16 항공운송팀은 검증된 방법론과 숙련된 인력투입으로 IFRS16 도입 자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신동준 상무 (항공운송 산업 리더)

Tel. 02-2112-0885 / E-mail. dongjunshin@kr.kpmg.com



‘컬처플렉스’를 이끄는 문화 브랜드 ‘CJ CGV’

1998년 CGV강변 오픈과 함께 국내 최초로 멀티플렉스를 도입해 영화관람의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 온 CJ CGV. 대한민국 NO.1 브랜드에 안주하지 않고 영화라는 근원적 가치에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접목시킨 복합문화공간 ‘컬처플렉스’로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 CJ CGV(9월 3일 기준)는 국내 152개 극장의 1,120개 스크린을 포함해 전 세계 7개국 473개 극장의 3,513개 스크린을 보유한 글로벌 TOP 5 극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영화 그 이상의 감동을 전하는 문화 놀이터, CGV

CJ CGV는 1998년 서울 구의역에 국내 최초의 멀티플렉스인 CGV강변을 개관했다. 이후 20년 동안 꾸준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영화시장을 선도해왔다. 국내 멀티플렉스의 양적 성장을 이끌며 연 관객 2억 명 시대를 활짝 열었다. 질적으로도 프리미엄 상영관 ‘골드클래스’, ‘씨네드쉐프’를 비롯해, ‘IMAX’, 독립·예술 영화 전용관 ‘CGV아트하우스’ 등 다양한 콘셉트의 상영관을 국내 최초로 도입해 영화관람 문화의 획기적 변화를 이끌었다. 특히 오감체험특별관 ‘4DX’와 다면상영시스템 ‘스크린X’ 등 CJ CGV가 자체 개발한 특별관은 국내를 넘어 전 세계 극장 사업자들의 큰 관심 속에 확장해왔다. 4DX(9월 3일 기준)는 59개국 551개 관, 스크린X는 12개국 152개 관까지 그 수를 늘리며 이제는 세계 유수의 극장 사업자 및 메이저 스튜디오들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CJ CGV는 영화라는 근원적 가치에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접목시킨 복합문화공간 ‘컬처플렉스’를 제시하며, 영화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 냈다. 영화 굿즈 전문 스토어 ‘씨네샵’, 다양한 맥주와 스낵을 즐기는 ‘씨네팝’, 가상현실과 체험형 스포츠의 만남 ‘V버스터즈’, 버스커 공연 공간 ‘버스킹 라이브’, 스포테인먼트 다이닝펍 ‘볼링팝’, 신개념 만화카페 ‘롤롤(lolol)’, 체험형 미션 게임 ‘미션브레이크’



1. CGV용산아이파크몰 2. 융합관 4DX with ScreenX 3. 중국 CGV베이징 칭허 대표소에서 영화 티켓을 끊고 있는 관객들의 모습 4. CGV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한 토토의 작업실 현장

등의 사례를 통해 문화 놀이터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국내 최초 영화전문 도서관 'CGV 씨네 라이브러리', 어린이 전용 상영관 '씨네키즈' 등 신개념 극장들을 차례로 선보이며 극장의 문화공간화를 주도했다. 올해 7월에는 숲 속 영화관을 콘셉트로 한 '씨네&포레'를 선보여 호평받은 바 있다.

글로벌 No.1 컬처플렉스로 확산 중인 CGV

CJ CGV는 해외 시장 공략에도 힘쓰고 있다. 2006년 10월 중국 상하이에 첫발을 디딘 이후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터키에 진출했다. 이어 2017년 10월 러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부동산 개발 업체인 ADG 그룹과 조인트벤처(JV) 설립 계약을 체결하며 해외 7개국으로까지 확대했다. CJ CGV는 올 연말 국내외를 합쳐 500개 극장을 돌파하고,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을 넘어서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극장기업으로 거듭나는 전환점을 맞는다. 2012년 말 국내외 극장 수가 133개에 지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6년 새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셈이다. 특히 글로벌 진출은 크게 기진출국과 이머징 마켓(Emerging Market)으로 구분한 차별적 전략을 통해 글로벌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진출국은 영향력 강화를 위해 시장 내 경쟁 우위를 선점하고 한류문화를 확산해 갈 것이다. 이머징 마켓은 기진출

국 인근 또는 고성장 국가 중심으로 영화 산업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을 선정해 2020년까지 3개국에 추가 진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누적 총 11개국, 1만 스크린, 86%의 거점이 해외에 위치한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청소년의 꿈을 응원하는 CGV

CJ CGV는 '기업은 젊은이의 꿈지기'라는 그룹 경영 철학에 기반을 두고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문화 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 등에도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극장에서 청소년들이 영화가 제작되는 과정을 배우며 영화 제작 현장의 직무를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 '토토의 작업실'을 2008년부터 10년간 운영해왔다. 국내뿐 아니라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토토의 작업실'을 통해 청소년들이 직접 경험하고, 스스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글로벌 나눔 활동을 지속해왔다. 또한 CJ도너스캠프와 함께 사회 곳곳의 문화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영화 관람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 혜택을 나누는 '객석나눔'도 진행 중이다. 그간 약 14만 8천명의 문화 소외계층과 함께 영화 관람 등의 문화 활동을 전개해왔다. 앞으로도 CJ CGV는 영화에 대한 꿈을 펼치기 위한 다양한 장을 마련함은 물론,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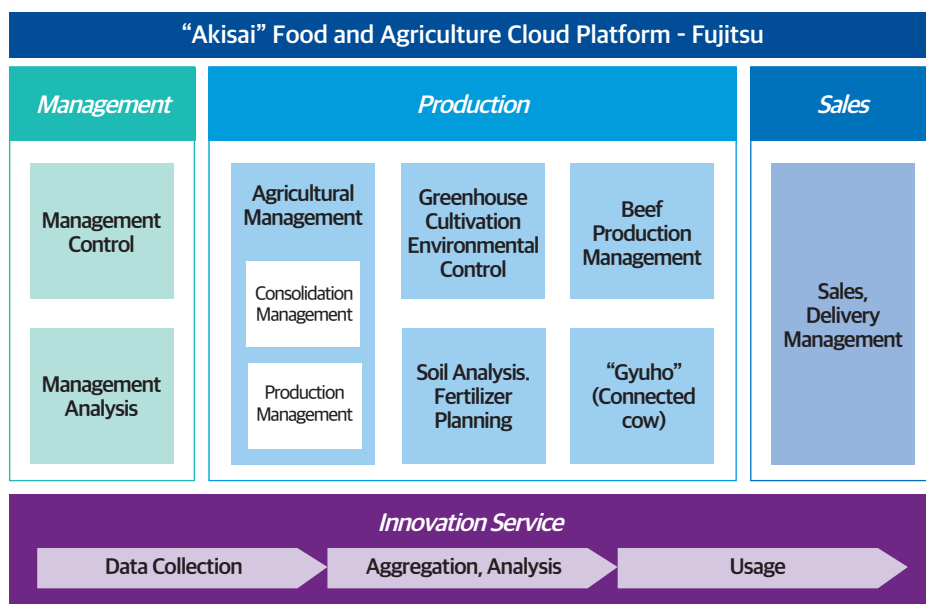
4차 산업혁명 新 아젠다, ‘스마트팜’을 준비하라

글로벌 스마트팜 시장의 성장

저성장 시대가 도래했다. 이에 기업들은 해외 시장 진출, 관련·비관련 다각화를 위한 M&A, 신규사업 직접투자 등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산업용 사물인터넷(IIoT) 등 ICT 기술 기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 주목받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이 진행됨에 따라 기업들은 다양한 신규사업 기회를 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아젠다 가운데 ‘스마트팜’ 분야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이다.

글로벌 스마트팜 시장은 현재 2천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며, AgTech(Agriculture + Technology) 분야 투자 규모는 최근 5년간 10배 이상 확대됐다. 투자 대상 분야 또한 농업 분야 재배/생산뿐 아니라 유통, 소비 등 농업 분야의 전 가치사슬(Value Chain)을 망라하고 있다.

Google은 ‘Farm 2050 프로젝트’ 하에 농업 분야 Start-up 발굴을 적극 추진 중이며, 마이크로소프트는 Monsanto社와 함께 첨단정밀농업 분야에 공동 투자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후지쯔, IBM, NTT 등의 기업이 ICT 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영농 전문기업이 아닌 글로벌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기업들이 주목하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스마트팜’이다. 사업 기회 창출 관점에서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해 다양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 글로벌 기업들의 스마트팜 사례와 우리나라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선도 ICT 기업이 농업 분야와의 융합을 시도하는 것이다.

특히, 후지쓰의 경우, 농업 경영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카사이(Akasai)’를 기반으로 이와 타에 축구장 12배 크기의 대규모 식물공장단지를 건설했다. 이를 통해, 고가의 채소를 연중 고른 수확량을 유도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후지쓰의 식물공장단지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이용해서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최적의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비료량을 결정하며, 컨베이어벨트 등의 설비를 적용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스마트팜 개념을 통해, 작물 관리 노하우를 ICT 기술 기반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 농업 전문가가 아닌 귀농 또는 초보 농가에서도 손쉽게 작물 관리 및 운영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이다. 나아가 후지쓰는 ‘아카사이’ 기술을 활용한 수출 확대 또한 추진 중이며, 최근 베트남 최대 IT 기업인 FPT와 협력하여 베트남 현지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 韓 스마트팜 시장 주도 위해 다양한 대응책 마련해야

스마트팜 분야는 기술기반 사업영역으로서 서서히 구체화되고 있다. TMT(Technology,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분야에서 ‘Tech. Giant(기술거인)’라는 개념이 있다. 광범위한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거대화된 기업으로서 동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기업을 일컫는다. 이러한 기술거인들의 타깃 산업이 1차 산업까지 확대되고 있다. 1차 산업 유관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기술거인의 지배력이 확대되면, 국내 시장 또한 이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도래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의 스마트팜 확산대책 정책을 바탕으로 스마트팜 보급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마트팜혁신밸리 구축,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 투자 등에 7천억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지만, 정부 주도만으로는 해외에서의 AgTech 분야 투자를 따라가기에 한계는 분명하다. 최근 몇몇 대기업에서 스마트팜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일부 실행에 옮겼으나, 농민단체의 반발로 계획이 철회되거나, 매각 후 철수했으며, 현재는 대부분 중소기업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다.

앞서 사례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스마트팜의 핵심은 선도기술 확보이며, 이는 중소기업 중심으로는 매우 제한적이다. 1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뿐 아니라, 신성장동력 발굴 차원에서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하는 1차 산업과 4차 산업혁명 간 융합 영역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며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다양한 전략적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시장을 형성하는 데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CONTACT US

SCG1 (STRATEGY CONSULTING GROUP)본부 신기진 상무

Tel: 02-2112-7738

E-mail: kshin1@kr.kpmg.com

‘보험부채 시가평가’ K-ICS, 어떻게 준비할까?

신지급여력제도 (K-ICS)는 IFRS17과 함께 2021년에 도입될 예정이다. 제도 시행에 앞서 K-ICS는 무엇인지, 보험 업계에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전문가를 통해 알아본다.



삼정KPMG Risk Consulting Service
양현석 상무

Q. 2021년에 IFRS17과 동시에 도입될 K-ICS는 무엇인가요?

A. K-ICS(Korea-Insurance Capital Standard)는 현행 보험회사 건전성 감독규제인 RBC(Risk Based Capital)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건전성 감독 규제입니다. 국제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의 국제보험자본기준(ICS)을 기초로 하여 국내 현실에 맞도록 2018년 중 필드 테스트 과정을 거쳐, 2021년부터 IFRS17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건전성 감독 규제인 K-ICS는 기존의 RBC 제도의 달리 자산과 부채의 시가평가 제도 도입, 리스크 산출 방법의 위험계수 방식에서 시나리오 방식으로 변경, 신뢰 수준의 강화(99.0%→99.5%) 등이 예상됩니다. 또한, K-ICS의 지급여력비율인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 비율은 100% 이상이 되도록 건전성 감독 규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K-ICS 도입이 국내 보험 업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A. 먼저, K-ICS 도입으로 시가평가에 따라 부채 규모의 큰 증가로 지급여력 비율 산출 시 분자인 가용자본(자산 - 부채= 순자산가치)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또한, 리스크 산출 방법 변경, 신뢰수준 강화 등으로 분모인 요구자본 증가로 인해 지급여력 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100) 하락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본 확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RBC와 달리 요구자본 산출의 복잡화 등으로 K-ICS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지급여력 비율 준수를 위해 요구자본이 상대적으로 적게 산출될 수 있는 내부모형에 대한 보험 회사의 니즈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K-ICS 도입에 따라 우리나라 보험 업계가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K-ICS 도입으로 보험사는 재무 건전성 악화가 예상됨으로 자본 확충을 통해 가용자본의 규모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IFRS17과 더불어 시가평가 기반의 공정가치 평가로의 변화, 리스크 분류 기준 변경, 리스크 산출 방법 변경(위험계수 방식→시나리오 방식), 신뢰수준의 강화 등 요구자본 산출 방법의 복잡화 및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 및 공시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K-ICS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분모인 요구자본 축소를 위해서는 내부모형에 의한 요구자본 산출 체계로의 이행 준비를 위해 감독당국의 내부모형 승인 과정이 필요하며, 승인 요건 충족을 위해 내부모형 승인 요건에 맞는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등을 해야 합니다.



100%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최근에 가장 이슈를 모은 시사, 경제 용어는 무엇일까? 우리가 모르고 지나칠 법한 이슈들을 소개하는 <맛있는 경제>를 통해 살펴보자.

네오뱅크 (Neo Bank)

오프라인 지점 없이 모바일이나 인터넷만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의미한다. 디지털이나 소셜 네트워크 등을 기반으로 고객과의 접근 방식을 넓힌 인터넷 은행이라고 볼 수 있다. '네오뱅크'로 통칭하는 인터넷 은행들은 점포 없이 비대면 채널 위주로 영업을 확대했으며,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자산관리, 빅데이터 활용 대출상품 등을 선보였다. 무엇보다 공인인증서가 아닌 얼굴 인증, 지문 인증 등을 도입하고 계좌번호가 없는 간편 송금 서비스 등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넓혀 나가고 있다.

출처: 연합인포맥스

그린오션 (Green Ocean)

경쟁이 치열해진 '레드오션'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블루오션'이었다면, '그린오션'은 친환경에 핵심 가치를 두고 환경·에너지·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저탄소 녹색경영'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이다. 최근 세계 각국이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서 그린오션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제너럴일렉트릭(General Electric), 휴렛팩커드(HP), 구글(Google) 등 글로벌 기업들은 환경이 갖는 잠재력을 인식하고 다양한 그린오션 전략을 펼치고 있다.

포춘이 선정한 500대 기업 ... 韓 삼성전자는 12위

지난 7월 20일, 미국 경제 전문지 포춘(Fortune)이 글로벌 500대 기업을 선정했다. 1위는 월마트였으며, 우리나라 기업 중 삼성전자가 12위에 오르며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2018 글로벌 500대 기업

2017년 매출액 기준

단위: 억달러

월마트	1	5,003.4	폴크스바겐	7	2,600.3
중국국가전망공사	2	3,489.0	BP	8	2,445.8
중국석유화공	3	3,269.5	엑손 모빌	9	2,443.6
중국석유천연가스	4	3,260.1	버크셔 해서웨이	10	2,421.4
로열 더치 셸	5	3,118.7	애플	11	2,292.3
도요타	6	2,651.7	삼성전자	12	2,119.4

자료: 포춘

행복한 일터

삼.소.해

인재양성소

KPMG Tour

Talk + Play + Love

Culture & Etiquette

KPMG Story

Samjong News



삼정인, 소개해주세요!

독서의 계절, 삼정인이 추천하는 '인생 책'은?

높고 푸른 하늘과 살랑살랑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왔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 하지 않았던가? 올가을에는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 삼정인들에게 각자의 인생 책을 추천받았다.

내 삶을 돌아보게 하는 『라틴어 수업』 이재용 S.Manager (CM1)

『라틴어 수업』 저자 한동일 신부는 동아시아 최초의 바티칸 변호사이자, 오랜 시간 유럽의 법과 역사에 대해 공부한 학자인데요, 그는 간단한 라틴어 문장 몇 개로 유럽인들의 삶과 철학을 전달해줘요. 저는 이 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데 메아 비타(De mea vita)'라고 말하고 싶어요. 라틴어로 '나의 인생에 대하여'라는 뜻인데요, 바쁘게 살아가며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 버린 사람들에게 삶의 가치와 철학에 대해 되돌아보게 하는 '오아시스' 같은 책인 것 같아요. 삼정인들도 꼭 한 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사랑의 현실을 담은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 박선일 S.Senior (ICE2)

저는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을 소개하고 싶어요. 어쩌면 결혼을 앞둔 누군가에게는 불안감 또는 고민을 안겨 줄 수도 있고, 결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뀔 수도 있을 책이에요. '연인과 부부는 처음의 그 사랑과 열정만으로 함께 할 수 없다.' 즉 언젠간 벗겨질 공작지와 설렘 그 후의 이야기를 그린 내용인데요, 소설이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예요. 물론 저는 이 책을 읽은 후 결혼도 하고,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하하. 사랑에 대한 여러 생각과 배움을 얻을 수 있기에 추천해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다르게! 『프레임』 이동규 S.Analyst (Deal Advisory3)

『프레임』은 같은 사람에게, 같은 질문일지라도 '질문 어순 및 방법'에 따라 다르게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인 사례로 짚어주며, 문장의 힘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줘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문제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느꼈고, 다른 사람의 말 또는 행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어요. 이 책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데 도움을 받은 만큼 삼정인들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리프레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익숙한 감정을 새롭게 표현한 『바깥은 여름』 이민선 Senior (관세)

복잡한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한 소설 『바깥은 여름』을 추천해요. '상실'을 주제로 여러 이야기를 하나로 묶은 단편집이에요. "문학은 오랜 세월 말에 쌓여 있는 수많은 먼지 같은 것을 털어서 그 말의 고유한 의미나 다른 의미를 들여다 보게 만든다."는 영화평론가 이동진의 말처럼 '단어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고, 어떤 한 감정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라고 깨닫게 해준 책이에요.



5% 이내의 우수한 성적 거둔 인재들을 만나본 시간

2018 한공회 종합평가시험 성적우수자 시상식 개최

삼정KPMG는 지난 8월 14일 삼정KPMG 본사 바다 라운지에서 '2018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수습 1년 차 기본실무 및 수습 2년 차 외부감사실무 종합평가시험'에서 5% 이내의 우수한 성적을 거둔 회계사들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1~2년 차 종합평가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총 35명의 회계사가 표창을 받았다.

수습 1년 차 기본실무에는 법인 소속 대상자 275명이 응시, 24명(8.7%)이 상위 5% 이내의 성적우수자로 선정됐다. Big4 중 가장 많은 인원은 물론, 높은 비율의 성적우수자를 배출했다. 특히 박민상 회계사가 전체 수석을 기록했으며, 전체 1~5등을 포함한 총 7명이 상위 10등에 포함됐다. 수습 2년 차 외부감사실무에는 210명이 응시했고, 그중 11명(5.2%)이 상위 5%의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삼정KPMG 김교태 회장은 “법인이 지닌 가장 소중한 자산은 ‘인재’다. 이번에 수상한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 법인의 밝은 미래의 주인공이 되리라 생각한다. 한공회 종합평가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3년 차에 ‘Global Elite Program(GEP)’에 참가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모두 성실하게 1~2년 차를 보내 3년 차에는 법인이 제공하는 영국 연수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상위 5% 이내 성적을 거둔 우수자



1년 차 기본실무 박민상(ICE1), 원종혁(Deal Advisory4), 이우인(Global Tax), 이희건(IGH), 정다운(ICE1), 남희수(JP), 조승식(Deal Advisory4), 심재민(IM2), 이수종(JP), 차지혜(Deal Advisory2), 최영우(IM3), 정지원(JP), 이민호(IM2), 조광희(IM2), 이현수(IM4), 김대원(IM1), 임재완(IM2), 정준성(IM4), 손승범(JP), 윤소영(ICE1), 박재현(JP), 우승오(ICE1), 정익수(Deal Advisory4), 박영훈(JP)



2년 차 외부감사실무 정수현(B&F3), 문성균(B&F1), 이주원(Deal Advisory4), 이흥기(Deal Advisory2), 민유경(Deal Advisory2), 임이랑(B&F1), 조지훈(JP), 오지수(Domestic Tax2), 윤승노(B&F2), 이건호(IM4), 김관영(JP)



성적우수자 미니 인터뷰

① 한공회 성적우수자 수상 소감 한마디 ②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노하우! ③ 앞으로의 계획

“누구나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삼정인이 되고 싶어요!”

박민상 Associate (ICE1) - 1년 차 종합시험 전체 1위

① 사실, 시험이 생각보다 어려워 걱정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어 매우 기쁘네요. 법인과 본부에서 많이 신경 써주신 덕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ICE1 동기들에게도 고맙다는 말 전합니다!

② 윤리 과목에서 고득점을 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윤리 과목이 올해 처음으로 별도 과목으로 분리 출제됐기에, 조금 더 신경 써서 공부했거든요. 그리고 L&D에서 제공해준 자료를 자투리 시간에 조금씩 미리 봐둔 것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③ 1년 차 시험에서 뜻밖으로 좋은 성적을 거둬 많은 분들께 축하와 격려를 받았어요. 격려 해주신 만큼 더 노력해서 내년에 있을 2년 차 시험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어요. 또 다른 목표가 있다면 업무 능력을 배양해, 법인 안에서 누구에게든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가 되고 싶어요.



“이제는 GEP 우수자에 선정되도록 노력할래요”

원종혁 Analyst (Deal Advisory4) - 1년 차 종합시험 전체 2위

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어 매우 기쁘요. 사실, 저보다 뛰어난 동기 분들이 많은데 그때그때 스케줄이 바빴던 사람과 상대적으로 시간이 있던 사람들 간에 사정이 다르기에, 아마도 누구나 많은 시간이 주어졌다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도 하게 되네요.

② 지난 성적우수자들의 노하우 코멘트를 보고 개정사항이나 제가 취약한 부분 위주로 본 것이 제한적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 같아요. 또한 L&D본부에서 제공해준 기출문제와 퀴즈들을 풀어 보면서 자기 점검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큰 도움이 됐어요.

③ 이제 1년을 막 채운 신입 회계사로서 많이 부족하지만, 제 분야에 정통하여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꾸준히 저에게 주어진 것을 익히고 선배 동료들로부터 많이 배우고 싶어요. 앞으로 열심히 맡은 바에 충실하여 GEP 해외연수도 경험해보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글로벌 KPMG에서 해외 근무도 해보고 싶습니다!



“군 복무 후, 삼정인으로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정수현 Associate (B&F3) - 2년 차 종합시험 전체 2위

① 저는 B&F3본부 소속으로 입사했고요, 현재는 해군 재정 장교로 군복무 중이에요. 사실, 군복무 중에 이번 시험을 보게 되어 좋은 성적을 기대하지 못했는데 기쁘게도 성적우수자로 선정됐네요.

② 우선 L&D본부에서 준비해준 퀴즈 자료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워낙 시험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퀴즈 자료를 먼저 살펴보고,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은 별도로 한공회 교재를 참고하며 추가적으로 공부했죠. 또 평상시에 선배 회계사들이 일거놓은 양질의 감사 조서를 공부한 것도 도움이 된 것 같아요.

③ 이제 군 복무기간이 1년 9개월 정도 남았는데 남은 군생활을 잘 마치고 제 자리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법인에 복귀해 삼정인으로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GEP 우수자에도 선정될 수 있다면, 해외연수의 기회를 잡아 영국에 가서 견문을 넓혀보고 싶고요.



B&F3 김주호 Associate

제주도 한라산 등반을 떠나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 제주도 한라산. 한라산이라는 이름은 산이 높아 산정에 서면 은하수를 잡아당길 수 있다는 뜻이다. 김주호 Associate는 한라산 등반으로 아름답고 감동적인 순간을 마주했다고 한다. 그가 추천하는 한라산 등반의 베스트 장소는 어디일까?

꼭 정복해보고 싶었던 한라산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고 아름다운 산이라고 익히 들었던 한라산. 언젠가 꼭 오르고 싶었지만 제주도 여행일정 하루 이상을 소요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가지 못했던 곳이다. 나는 회계사 1년 차로서 첫 기말감사를 무사히 마무리한 후, 전문직으로서 목표 의식으로 꾸준히 공부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내가 과연 실천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부터 들었다. 이때 '예전부터 실행을 미뤘었던 한라산 정복부터 이룬다면, 다른 목표들도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지난 3월 무작정 제주도로 떠났다.

제주도 한라산 Best3

① 한라산 하면 한라산!

제주도 한라산의 베스트 명소를 꼽으라면, 우선은 한라산 자체를 거론해야 하지 않을까? 가장 먼저 한라산 자체를 소개하고 싶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인 한라산(1950m)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곳으로 천연의 아름다움을 지닌 곳이다. 기말감사가 끝난 3월까지도 아름다운 설경을 보존하고 있던 한라산은 힐링이 필요하던 나에게 있어 최고의 명소였다. 등산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죽기 전에 한번은 꼭 한라산을 정복해보라고 추천하고 싶다.

② 한라산 정상에서 만나는 '백록담'

한라산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곳은 역시 백록담이다. 백록담이라는 이름은 옛 신선들이 백록주를 마시고 놀았다는 전설과 흰 사슴으로 변한 신선과 선녀의 전설 등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한라산 정상에 위치한 백록담은 이제 더 이상 호수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화구 곳곳에 쌓여있는 잔설과 얇은 물만으로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다. 한라산 정상인 백록담은 기후가 불안정해서 1년에 60일 정도를 제외하고는 자욱한 안개로 인해, 백록담을 다 보기가 어렵다고 하니, 삼정인들도 필자처럼 운이 좋은 날에 백록담을 찾아 갈 수 있길 기원한다.



제주도 한라산의 백록담



사라오름에서 만난 산정호수



③ 아름다운 산정호수 경관을 볼 수 있는 '사라오름'

사라오름은 한라산 정상에서 동북쪽으로 뻗어 내린 사면부에 위치해 있다. 성판악에서 출발하여, 1시간가량 걷다 보면 사라오름에 갈 수 있는 갈림길이 나온다. 앞에 있는 '사라오름 왕복 40분'이라는 팻말을 보면, 한시바빠 백록담으로 가는 것이 낯것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라오름에 도착했을 때 펼쳐진 아름다운 산정호수의 경관을 본다면 왕복 40분이 결코 아깝지 않을 것이다.

다만, 아름다운 호수절경과 함께 사진을 찍다가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니 주의하길 바란다.

한라산 등반 꿀 TIP

백록담으로 향하는 한라산 등산코스는 성판악코스와 관음사코스 2가지가 있다. 성판악코스는 길지만 쉬우며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코스이며, 관음사 코스는 짧지만 어려우며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코스이다. 성판악코스 → 사라오름 → 백록담 → 관음사코스로 아름다운 경관을 보며 하산하는 코스를 이용해야 한라산의 모든 것을 체험하고 올 수 있다.

등반 후에 즐기는 꿀맛! '흑돼지와 한라산 소주 한 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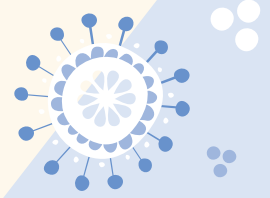
한라산 등반을 마치고 내려온 허기를 달래기에는 역시 제주도 흑돼지와 소주 한 잔 아닐까? 제주 중문에 위치한 '돈이랑' 흑돼지를 적극 추천한다. 두툽한 오겹살에 멸치젓(멜젓)을 찍은 찜과 함께, 한라산 등반기념 '한라산 소주' 한 잔, 완벽한 한라산 등반의 마무리였다.



한라산 정상에서 만난 아름다운 백록담



(맨 좌측부터) 황혜영, 유은경, 임현재, 김준수 Associate가 향수 체험 전 기념 촬영 중이다.



우리만의 '향수' 만들기 “향기로운 사람 될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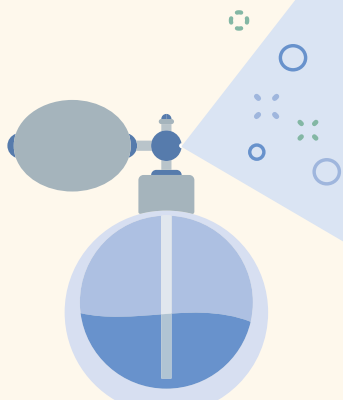
사람의 매력을 더해주는 뷰티 아이템, 향수. 1년 차 신입 회계사 동기들이 모여, 본인만의 특별한 향수를 만들고 돌아왔단다. IM2본부 김준수 Associate가 소개하는 각자의 개성을 담은 '향수 만들기' 에피소드를 함께 들어보자.

더욱 깊어질 동료애를 기대하며!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입사한 IM2본부의 비주얼 김준수입니다. 하하. 입사 이후 멋진 선배님들 및 동기들과 즐거운 법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2018 기말 감사를 마무리하며 IM2 동기인 유은경, 임현재, 황혜영 회계사와 많이 친해지게 되었는데, 색다른 추억을 만들고, 더욱 깊어질 동료애를 기대하며 'Talk+Play+Love'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플라워 레슨을 하려고 했지만, 예쁘게 만들어도 선물해줄 사람이 없다는 슬픈 현실에 다른 체험을 고민했어요. 그러다, '향수를 만들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꾸며보자!'라는 의견이 나왔고, 이 제안에 모두 동의하게 되어 '우리만의 특별한 향수 만들기'에 도전하게 됐어요.

각자의 개성을 담은 나만의 '향수'

우리는 한공회 1년 차 종합평가시험을 봤던 날, 모든 시험을 잘 마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이태원의 향수공방으로 향했어요. 향수는 에센셜 오일이 휘발되는 속도와 향의 특성에 따라 톱 노트(Top note), 미들 노트(Middle note), 베이스 노트(Base note) 3단계로 분류되는데요, 향수 만들기 첫 단계는 바로 본인이 원하는 베이스 노트 향을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이후에 각자 고른 베이스 향에 어울리는 미들 노트, 톱 노트를 조향사가 직접 추천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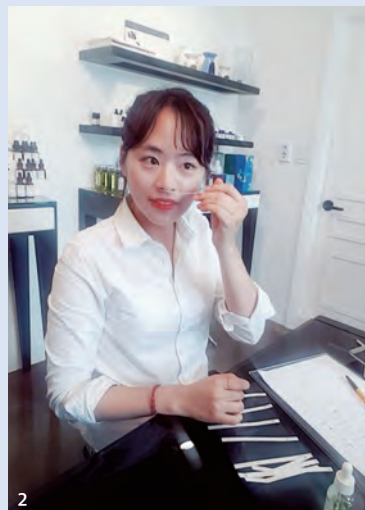
베이스 노트 종류로는 총 7가지 향이 있었고요, 우리는 각자 좋아하는 향으로 베이스 향을 선정했어요. 베이스 향을 고르며 알게 된 사실인데요, 베이스가 향수의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이 되더라고요. 미들 노트와 톱 노트 역시 7~8가지 향 중에 선정할 수 있었는데, 이때는 심리테스트와 성향, 어떤 향을 만들고 싶은지 등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각자 어울리는 향을 고를 수 있었어요. 이러한 설문 조사를 통해 각자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었고, 조향사의 추천을 통해 정말 본인에게 어울리는 향수를 만들 수 있었죠.

체험 중 재미있었던 점은 향수를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은 향을 맡고 선정해야 하니, 머리가 어지럽고 이 향이 아까 많은 향 같은, 정말 향을 구분하기에 어려운 순간이 와요. 그럴 때, 향을 환기시킬 수 있도록 공방에는 커피 원두를 준비했어요. 원두향을 맡으면 코에 계속 머물던 향이 씻겨 나가 다시 향을 맡을 수 있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소용이 없는지 나중에는 향 하나를 맡은 후 바로 원두를 맡아가며 향을 선정했어요. 하지만, 원두를 하나만 놔주셔서 네명이 원두 한 개를 돌려가며 쓰다가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하하.

사실, 처음 향수 공방에 들어갔을 때 깔끔한 수많은 향수병들이 있어 이 향을 어떻게 조합하나 싶었지만, 차근차근 설명 들으며 향수를 제조하니 다들 처음에 원했던 향이 만들 수 있었어요. 특히, 각자 만든 향을 맡으니 네 명 모두 완전 다른 향을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 정말 놀랐어요. 각자의 개성을 담은 향을 만들었듯이 앞으로도 각자의 개성을 뽐내며 즐거운 법인 생활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래오래 웃고 즐기며, 함께 성장해가기를!

이번 향수 체험을 통해 각자 성향이 다른 만큼 선택한 향들도 달랐고, 같은 향이라도 어떤 향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어요. 무엇보다, 사무실에서 매일 마주하는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때마침 향수공방이 이태원이라는 좋은 위치에 있어 체험을 끝낸 후 맥주 한잔을 하며 친목을 다지는 시간도 가졌어요. 그래서인지 동기들과 평소 시보다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동기들도 이번 체험이 즐거웠는지, 앞으로도 시간이 될 때마다 함께 다양한 체험들을 경험해보자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모두 지금까지처럼 오래오래 행복한 모습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자고 다짐하게 됐어요.



1. 각자의 개성을 담아 만든 향수

2, 3. 황혜영, 김준수 Associate 가 각 취향에 맞는 향을 고르고 있다.

4. 본인의 성향에 맞는 향수를 찾기 위해 심리테스트를 하는 IM2본부 동기 4인방

지엔향수공방 이태원점

전문 조향사들이 운영하는 향수공방으로 나만의 맞춤 향수를 만들 수 있는 곳이다. 이태원점에서는 천연 오일을 활용한 아로마테라피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다.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260-99

■문의: 02-3452-8182



세계 최대 인구의 나라, 중국의 문화와 에티켓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중국. 세계 최대의 인구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력과 넓은 영토에서 비롯된 풍부한 자원 등으로 미국을 위협하는 세계 제1의 강대국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중국 Korea Desk에 파견 중인 조원빈 Manager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세계 경제 대국인 중국의 문화와 에티켓을 소개한다.



발음에 따라 다른 의미가 부여되는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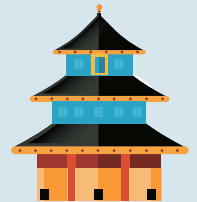
중국에서 해음문화를 처음 느낄 수 있는 곳은 휴대폰 대리점입니다. 동일한 서비스에도 부여받는 번호에 따라 그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저는 운 좋게도 한국에서 사용한 번호 뒷자리를 추가 비용 없이 사용하게 됐지만, 중국인이 선호하는 8, 6, 9 등이 많이 들어간 번호, 이를테면 8888과 같은 번호를 받고자 한다면 많은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중국 언어문화 중 하나인 해음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해음’은 비슷하거나 같은 발음을 가진 한자들의 뜻을 서로 교차해 그 의미를 연상하는 방식으로 중국어의 해음은 일상뿐만 아니라 언어 문화와 예술 작품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 중국인이 8을 선호하는 이유는 ‘돈을 벌다’의 뜻인 ‘파차이(发财)’의 ‘파’와 발음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중국에는 시계와 우산 등을 선물하지 않습니다. 이는 각각 발음이 ‘장례를 치르다’, ‘흠어지다’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의 수많은 중국 음식점 문 앞에 거꾸로 붙여진 ‘복(福)’자를 통해서도 중국의 해음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도착하다’라는 의미의 ‘따오(到)’는 ‘거꾸로’라는 의미의 ‘따오(倒)’와 발음이 동일하기 때문에 ‘복(福)’자를 단순히 거꾸로 붙여 놓음으로써 ‘복이 왔다’라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글자를 단순히 뒤집음으로써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 저는 이 해음문화가 중국 문화의 멋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해음이 유독 발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발음할 수 있는 중국어의 음절 개수가 한국어, 영어 등 타 언어에 비해 적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국어는 그 한계를 성조와 한자 안에 여러 가지 뜻을 담아, 극복했습니다. 그렇기에 중국어에서 성조는 다르지만 발음은 동일한 음절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중국만의 독특한 언어 해음문화를 형성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이것만은 꼭! 중국 Etiquette Plus+

1 상대방이 대접하는 자리에서 음식을 다 먹는 것은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므로 적당히 남기는 것을 추천한다.



2 도움을 받는 경우 동급의 값어치로 값을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감사 인사로 상대방 체면을 살려주는 것이 좋다.

체면과 관씨의 문화

여느 외국어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를 가장 먼저 배우게 되듯 중국어도 자연스레 ‘니하오(你好)’, ‘셰셰(谢谢)’, ‘똬이부치(对不起)’를 가장 먼저 익히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중국에 살면서 ‘똬이부치(对不起)’라는 말은 생각보다 듣기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한 다수의 중국인들은 미안한 상황이 생기면 그냥 ‘부하오이스(不好意思)’라고 가볍게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이곳에 살면서 저는 습관적으로 ‘똬이부치(对不起)’라는 말을 빈번히 사용했지만 정작 저는 이 말을 들은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정확히 알 순 없지만 아마도 중국 특유의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도 한가지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흔히들 중국은 관씨(关系)가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관씨(关系) 이면에는 체면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관씨(关系)를 통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와주는 것은 자신의 체면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인의 체면을 중요시하는 문화는 중국인이 초대된 식사자리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깝게 지내던 중국인에게 가족 식사를 초대받아 간 적이 있는데 끊임없이 나오는 요리는 물론이며, 값비싼 딸의 선물까지 준비해 저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한 적이 있습니다.

간빠이! 비슷한 듯 다른 음주문화

중국인이 잔을 서로 부딪치며 ‘간빠이(干杯)’라고 외치는 모습은 한국과 유사하며, 그 발음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건배는 마를 건(干)자와 잔 배(杯)자가 합쳐진 한자 의미 ‘그대로 잔을 비운다’는 의미이므로 평소 술 마실 때는 잔을 한 번에 비울 필요 없지만, 건배를 제안하면 잔을 비우는 것이 예의입니다. 또한 중국인들은 술을 받을 때 술잔 앞에서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곤 하는데 이는 ‘감사하다’는 의미입니다. 간혹 ‘그만 따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당황하는 한국인들이 있는데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이웃



1.자금성 청동사자상 앞에서 2. 매주 금요일 열리는 KPMG 맥주파티에서 동료들과

나라지만 뒷사람과 마실 때도 고개를 돌리지 않고, 눈을 보며 마시고, 첨잔이 가능한 점은 한국의 음주문화와 다른 점입니다. KPMG 베이징은 무더위가 시작된 7월부터 매주 금요일 5시 회사라운지에서 “Let’s have a cool Friday afternoon”이라는 맥주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찬 음료를 즐기지 않는 중국문화 탓에 맥주가 한국만큼 시원하진 않지만 무더위와 한 주간의 스트레스가 풀리곤 합니다. 한국에서는 연장자 앞에서는 고개를 돌려서 마신다는 제 말에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더니 바로 고개를 획 돌려서 마시는 독일인과 중국인을 보면서(본인이 더 젊어 보이고 싶다는 의미) 각국의 음주문화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CONTACT US
중국 KOREA DESK 조원빈 MANAGER
Tel. +861085533510 E-mail. wonbin.cho@kpmg.com

Global Etiquette

3

중국인들은 건강에 해롭다 생각하여 찬 음료를 즐기지 않는다. 아이스 음료를 주문해도 한국과 같은 시원함을 즐기 어렵다.

4

음주 시 고개를 돌리거나 혼자 빨리 마시는 것은 불편하다거나 당신과 마시고 싶지 않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실례가 될 수 있다.

중국 Korea Desk

KPMG 중국은 Big Firm 최초로 중국 내 Korea Desk를 설립하여 한국 기업 특성과 문화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도시인 베이징, 상하이, 홍콩, 광저우에 각각 한국인 직원이 주재하여 감사·세무·컨설팅 등의 서비스에 대해 단순 Coordination 업무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차별화된 한국 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Living the 7 Values! Communicate openly and honestly: 소통

개방적 사고를 바탕으로 명확한 의사전달과
적극적인 피드백을 한다

KPMG Story의 7 Values는 전 세계 197,000명의 KPMG 구성원을
하나로 묶어주는 행동 양식이다. 이번 호에서는 Value의 다섯 번째 요소인
‘Communicate openly and honestly: 소통’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기업에서 내리는 의사결정과 판단의 기준인 7 Values의 실천을 통해 전문가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The Clear Choice’가 되기 위해 동료들과 협업하며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때 ‘건강한 조직’과 ‘행복한 일터’ 그리고 ‘신뢰받는 조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성공하는 조직을 만드는 원동력은 ‘소통’

‘소통’은 개방적 사고와 정직함을 바탕으로 명확한 의사전달은 물론, 적극적으로 피드백 하는 것을 말한다. 스티븐 코비는 ‘인생을 사는 데 있어 커뮤니케이션은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말했다. 그만큼 원활하고 유기적인 ‘소통(Communication)’은 성공하는 조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7 Values에서 이야기 하는 소통의 기본은 자주, 일관되게 소통하고 창의 시대 대응을 위한 세대 간의 소통 문화를 강조한다. 또한 Professional 조직답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 있고 솔직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업무 속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Key Activity

- 개방적 사고를 바탕으로 명확한 의사전달과 적극적인 피드백을 한다.
- 상대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한다.
- 자신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는다.



개방적 의사 소통

- 세대 간의 차이를 존중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유도한다.
- 전달하는 메시지의 간결성, 적시성, 일관성을 갖춘다.

적극적 피드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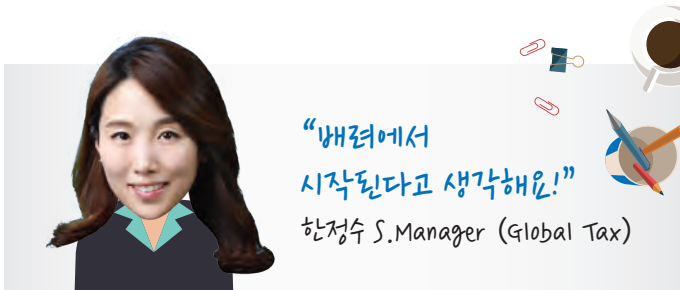
-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요청하고, 이에 근거하여 행동한다.
- 부하의 잘한 점에 대해서는 기꺼이 칭찬한다.
- 업무 수행의 결과를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주기적인 화합의 시간을 갖는다.
- 한 번 관계를 맺은 고객과 지속적 관계를 유지한다.

‘소통’에 관한 삼정인 인터뷰

- ① 본인이 생각하는 진정한 소통은 무엇인지 한 단어로 정의 한다면?
- ② 개방적이고 솔직한 소통을 위한 본인만의 노하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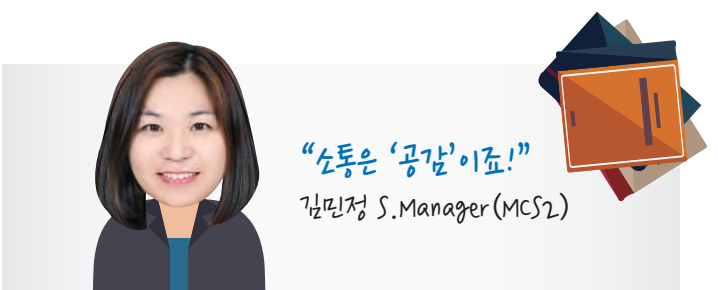
- ① 진정한 소통이 이뤄지려면 소통 후에 행동,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은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듣기만 하고 행동이나 변화라는 결과가 없다면 그 누구도 더는 말하려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소통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과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 ② 먼저, 업무를 진행할 때 동료들과 많이 대화하고, 생각을 나누며 진행하려고 해요. 또한, 팀원들이 본부 소식에 소외되지 않도록 본부의 소식을 모아 주기적으로 메일을 발송하며, 소통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직급이 낮을수록 본부 전략, 행정 사항 등을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 ① ‘소통’은 ‘배려’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회사에 불만이 커지는 이유는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배려하는 태도 부족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배려는 소통의 전제 조건이자 사람이 자사인 회계법인에서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② 제 소통 노하우는 ‘역지사지(易地思之)’예요. ‘내가 이 사람의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특히 후배들과 일할 때 한 번씩은 더 고민해봐요. 그리고 서로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것은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에 제 고민과 어려움도 동료들과 함께 나누려고 노력했어요. 이외에도 힘든 프로젝트를 함께 해준 동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은 것 역시 도움이 된 것 같아요.



- ① 저는 ‘허심탄회(虛心坦懷)’로 정의해봤어요. 소통은 마음을 열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편하게 생각을 터놓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건 상대방이 나에 대해 신뢰하고 평등한 관계에서 ‘소통’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 ② 먼저, 선배로서는 수평적 관계를 지향하며 먼저 다가가 말 걸고 장난도 치려고 하죠. 한데, 상대방은 편하게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불편했다면 사과할게요. 하하. 물론 저 역시도 후배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선배들에게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앞으로는 선배들에게도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 같네요.



- ① 소통은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표현 중에 ‘Put oneself in somebody's shoes’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소통이라는 무형의 동사를, 유형의 동사로 전환해 표현한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을 해서 공감을 하고, 공감이 되어 소통이 가능하고 전후가 달라질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것이 아닐까 싶어요.
- ② 업무 특성상 비좁은 프로젝트룸에 모여 앉아 전투적으로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사무적이고 딱딱한 분위기는 서로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이에 점심 혹은 휴식시간에는 업무에 벗어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입장과 고충을 이해하곤 해요. 이런 소통은 협업을 이끌어 고객에게 좋은 결과를 주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NEWS

삼성KPMG, '제4기 ACI 자문교수단' 위촉

삼성KPMG가 지난 8월 27일 '제4기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자문교수단'을 위촉했다. 이번 자문교수단에는 한중수 교수(이화여대 경영대학), 송옥렬 교수(서울대 법과대학), 지현미 교수(계명대 경영대학)가 3년 연속 자문교수로 위촉됐으며, 김일섭 회장(한국FPSB)과 손성규 교수(연세대 경영대학)가 지난해에 이어 연임됐다. 자문교수단은 임기 1년간 삼성KPMG ACI 활동 전반에 대해 경영, 회계, 법률 등의 자문을 맡게 된다. 분기마다 발간되는 'ACI 저널'의 기고 작성 및 간행물 감수, 그 외 정기 회의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삼성KPMG ACI는 감사위원회의 올바른 역할 정립과 위상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4월 발족됐으며, 매년 세미나 개최 및 교육과정 개선을 통해 감사위원회 지원에 힘쓰고 있다.

'감사위원회(ACI) 저널' 7호 발간



삼성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가 8월 21일 '감사위원회(ACI) 저널' 7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최근 외부감사법 개정과 함께 감사기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감사기구의 활동과 이에 따른 보수 현실화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언급됐다. 또한, 김일섭 회장(한국FPSB)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감사위원회의 역할 정립'에 대해, 송옥렬 교수(서울대 법과대학)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으로 인한 감사위원 책임 강화와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실효성'을 주제로 칼럼을 기고했다. 한편, 삼성KPMG ACI는 분기마다 'ACI 저널'을 발간하며 감사위원회와 감사를 아우르는 감사기구 및 이사회 관련 사안에 대해 제도적·실무적 현황과 이슈를 파악하고, 해법을 논의하는 장을 제공하고 있다. 삼성KPMG 홈페이지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Contact: ACI 리더 김유경 상무 youkyoungkim@kr.kpmg.com

삼성KPMG, '녹색·사회채권 세미나' 개최



삼성KPMG가 9월 5일, '녹색·사회채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녹색·사회채권 발행의 절차와 사례를 공유하고,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을 활용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삼성KPMG 김형찬 상무는 "최근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국의 기업들도 녹색채권을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한다"며, "미래사업을 위한 투자자금 조달과 지속가능한 사업 기회 모색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수단 활용방안에 대해 기업들도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 Contact: SCG1 김형찬 상무 hyoungchankim@kr.kpmg.com

삼성KPMG 오상범 전무, 'IFA Seoul 2018' 참가



'제72차 국제조세협회 연차총회(IFA Seoul 2018)'가 9월 2~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국제조세 관련 학술 연구 단체로, 매년 연차총회를 열어 조세분야 주요 쟁점을 놓고 토론을 펼친다. 국내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삼성KPMG 오상범 전무는 '기업수익분배에 대한 과세의 최근 경향'이란 주제의 토론에 참석해, 기업수익분배에 관련한 과세의 주요 내용을 짚어보고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 Contact: Global Tax 오상범 전무 sangbumoh@kr.kpmg.com

삼성KPMG 박상원 전무, 워크데이 한국 론칭 행사 패널로 참여



삼성KPMG 박상원 전무가 KPMG 파트너사인 글로벌 HR 기업 워크데이 한국 론칭 행사 패널 토론회에 참석해, 국내의 HR 트렌드, 이슈 및 해결책 등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에서 박상원 전무는 “HR 분야에서도 직관, 또는 주관에 최대한 배제 시키고, 직원들의 채용, 승진, 보상, 평가 등에 있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 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 데이터가 구조화돼야 하고, 매우 유연해야 하며,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다양한 리포트 체계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Contact: MCS2 박상원 전무 sangweonpark@kr.kpmg.com

삼성KPMG 김민수 상무, ‘ISEC 2018’ 기조 강연자로 나서

지난 8월 30~31일 양일간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사이버 시큐리티 콘퍼런스 ‘ISEC 2018(International Security Conference)’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삼성KPMG 김민수 상무가 ‘For a Better Life!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보안’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김민수 상무는 최근 보안사고의 트렌드, 시장규모, 주요 이슈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사이버 물리 보안, AI 보안, 스마트팩토리 보안 등의 세부 주제를 통해 보안사고가 인간과 기업을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 앞으로의 보안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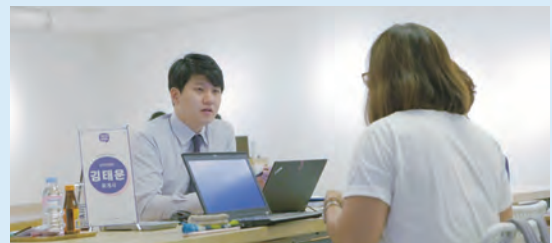
* Contact: MCS2 김민수 상무 mkim9@kr.kpmg.com

부모 직장체험 활동, ‘제9회 Kids Camp’ 개최



지난 8월 17일 ‘2018 Kids Camp’가 진행됐다. 삼성KPMG Kids Camp는 임직원 자녀를 초청해 부모의 직장을 간접 체험하는 활동이다. 임직원 자녀 40명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경제의 기본 개념을 배울 수 있는 어린이 경제교육 프로그램부터 레크레이션까지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됐다. 앞으로도 삼성KPMG는 임직원이 일과 가정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사랑나눔 ‘NPO 상담소’ 진행



지난 8월 8일 삼성KPMG는 서울시 NPO지원센터가 주관하는 ‘NPO 상담소’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지난 5월 16일에는 김지영 Manager(B&F2)가 상담가로 참여해 총 NPO 4곳의 회계 관련 자문을 진행했으며, 8월 8일에는 김태운 Senior(DT&FS Tax)가 상담가로 참여해 NPO 2곳의 회계 관련 자문을 진행했다. 삼성KPMG는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NPO(비영리단체)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프로보노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The KPMG Story

The KPMG Story는 KPMG가 왜 존재하고(Purpose) 어떤 가치 속에 일하는지(Value), 무엇을 지향하고(Vision) 이를 위해 어떻게 나아가며(Strategic) 그 과정 속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Promise)를 명확히 보여주는, 일상 행동과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일관된 지침이다.

This is KPMG and
this is our story

| This is why we're here

Inspiring Confidence
Empowering Change
신뢰를 부여하고
세상의 변화를 주도한다

This is our Purpose

| This is what we believe in

- Lead by example 솔선수범
- Work together 협업
- Respect the individual 존중
- Seek the facts and provide insight 통찰력
- Communicate openly and honestly 소통
- Improve communities 공헌
- Act with integrity 정직성실

These are our Values

| This is what we want to be

- The Clear Choice:
- Our people are extraordinary
 - Our clients see a difference in us
 - The public trusts us

This is our Vision

| This is how we'll get there

We will:

- Drive a relentless focus on quality and excellent service
- Take a long-term, sustainable view
- Act as a multi-disciplinary firm, collaborating seamlessly
- Invest together in our chosen global growth priorities
- Continuously improve quality, consistency and efficiency
- Maintain a passionate focus on our clients
- Deploy globally our highly talented people
- Bring insights and innovative ideas
- Build public trust

This is our Strategy

| This is how we want the world to see us

With passion and purpose, we work shoulder-to-shoulder with you, integrating innovative approaches and deep expertise to deliver real results.

This is our Promise

삼성 KPMG

독자 여러분의 의견은 Channel을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Channel을 읽은 후의 느낌과 다양한 생각을 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시는 분 또는 Channel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kr-fmchannel@kr.kpmg.com Tel : 02-2112-7567

© 2018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